

열린 마당

東大 사건 이후, 처방은...

인성교육

화합정신으로 마음의 다리도 복구하자

제가 스승을 때리는 세상이다. 10월 31일 오후 6시 반경 동국대학교 본관 불상 앞에서 이 학교 국문과 학생 7명이 불교대학 선학과 최현각 교수를 집단폭행했다.

이 대학생들은 술에 취해 불상을 발로 차고, 최교수가 신분을 밝히고 나무라자, 주먹질 등으로 집단구타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에 「잘못 가르친 책임」을 느껴 충장을 제외한 전 보직교수가 사표를 내고, 문제학생 가운데 2명은 제적, 5명은 무기정학처분을 받았으며, 징계학생들은 동국대 정각원에서 3천배 참회 정진법회를 가졌다 한다.

우리 전통적 도덕성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되는 데, 학문을 전수하는 대학 교정에서 3배를 해야 할 인친의 스승(天人師)인 부처님 상자에 발길질을 하고 이를 나무라니 스승교수에 게 대학생들이 집단구타했다는 것은 언 어도단이다.

이밖에도 최근에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불경히 강제학살당하는가 하면, 교내에서 주차 문제로 대학생들이 교수를 집단폭행하는 등 사제간의 윤리가 많이 아 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도덕적 무질서 즉 아 노미(Anomie:沒價値)의 상태가 되어 사

사설
회가 붕괴되는 총체적 위기상태이다. 최근 잇따른 「지존과 살인사건」 「인친 복구형 세도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은 사회전체적 불신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공업(共業)을 쌓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중요 이유는 우리가 주인정신을 잃고, 전통적 가치체계는 붕괴됐으며 새 가치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채, 서풍이 풍풍을 제압하는 종도 속에서 사대주의와 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도덕적 무질서로 땅에 떨어진 사제간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교육이 잘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사회 전체가 인덕정치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가치체계 확립이 나서는 시기일것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불성인 인격을 최고 가치로 하여 '나 는 누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고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 보살도에는 못 이 르더라도 어린시절부터 가정과 학교 및 사회가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동체 윤리만은 꼭 지키 게 습관되어야 한다.

마음엔 부처님의 진리인 화합중(和合衆: Samgha)이 되어야 한다. 4부대중이 화합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참회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서로 살리는 6화상생(六和相生)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교수들 가르치는 사람은 인격적 모범을 보여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제자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스승이 나랏님이나 부모님과 같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것을 깨달아,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제 1의 덕목으로 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제도에서 잘하는 학생 예견 상을 주고, 잘못하는 학생예견 벌을 주는 신상필벌(賞善必罰)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사제간의 윤리확립과 함께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 대동일을 앞두고, 지금은 새 가치체계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입시지옥 탈피...

근본적 변혁 절실

편집국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식 교육이 시작된 것은 1897년 개항 이후의 일이다. 전래의 실학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편으로 선교사들에 의한 사학(私學)운동이 근대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션계통의 사학이 기독교의 전파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음에도 국민계몽에 끼친 영향은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제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학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우민화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을 방해하거나 실업에 교육에 치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에 식민통치의 압제 속에서도 자주 독립을 위해 사학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 민족교육사상에 있어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방 이후의 교육은 정치·사회의 불안 속에서도 한국인 특교육의 타전을 닦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고, 민족의 향구적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정신의 함양, 실용적 교육, 과학교육이란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론 민족교육이란 측면에서 충익인간을 교육의 지표로 제정한 것도 이 무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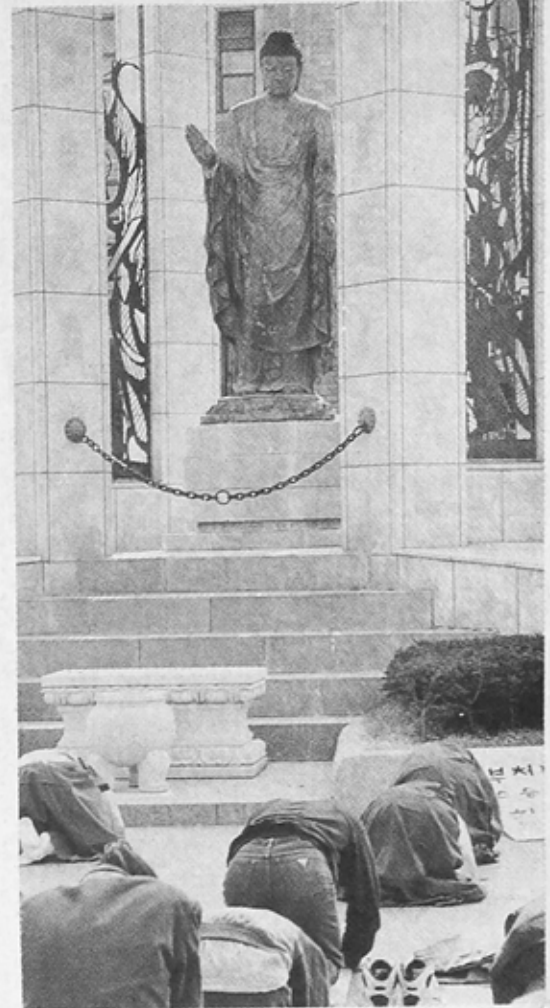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과 1963년 6월 「사립학교법」을 제정 공포하면서부터다. 이 무렵의 교육 슬로건은 「조국 근대화」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었다. 1968년에는 교육정책상에 일대 개혁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즉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와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대학입시 예비고사제와 통신평가제가 그것이다. 1970년대에는 「장기 종합교육계획」이 발표되고, 이어 1972년 부처는 「국적있는 교육」 찾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1년 7월 「장기종합교육계획의회의」는 「교육정책심의회의」의 규정이 새로 공포되므로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계획은 기본교육목적에 인간주의 방향, 국가주의적 방향, 발전주의적 방향에 두고 있었다.

1981년에는 교육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학입시의 본고사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학교의 내신성과 대학학력고사 성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신성적 제도가 지난 양성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역간의 편차로 인하여 일률적인 내신성적 반영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과 복고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제기한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주장에 따라 대학입시의 본고사 제도가 조심스럽게 대두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에 역력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혁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첫째 민주·정의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 정신교육의 강화, 둘째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셋째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넷째 창조·개혁·발전을 위한 전인 교육의 충실 등이다.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은 한국의 교육제도가 지난, 진학하기 위한 입시지옥을 야기했다. 특히 경제발전이 급성장



동국대학교 교정에 있는 불상과 참회하고 있는 학생들.

하자 70년대 이후는 진학이 출세를 보장하는 것으로 통속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학교교육을 진학의 발판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인간의 품성교육이나 '더불어 살의 미덕'을 가르칠 필요성이 없어졌다. 국·영·수의 실력배양이 진학의 필수요건이 되어 기타 교양과목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이제 한국교육의 장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대학입시의 근본적 변혁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사학을 중심으로 효령이 뛰어난 학생을 특별전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간의 품성을 함양시킬 전인교육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입식 수업을 불교적 도덕교육으로

올해 들어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그 어 때보다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는 하나 또는 둘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지나친 사랑으로 '오나오나'의 행태가 자기 중심적이게 하고 있다. 게다가 못해 보고 뜻이론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려는 '한풀이'의 교육관도 적지 않다. 여기에 입신출세의욕이 가세하여 학교성적 높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본적인 가치기존이나 예의범절은 실제에 있어 제2차적인 관심사항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이기성에 기초하여 생산성향상과 사회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건전한 도덕성과 공평한 법치가 확고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가장 취약점이 많은 사회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각적 향락과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는 많은 경우 도덕교육을 약화 내지 방해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주로 지식중심의 교육이다. 그것도 초·중등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양에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 반에 50명까지 수용하고 있어 이점에서 교육추진적이다. 결국 지식중

전문가의견
심의 확립화된 주입식이 교실수업을 지배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도덕교육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학벌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가치임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여기에 이미 지적한 가정의 교육관이나 행태가 근질된 가족주의와 복합되어 누구나 일류대학에만 보내려 한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빛나간 교육관이나 행태에 불모질한 꼴이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맞지 않으면 틀리는 것이라는 흑백논리의 사고방식을 내면화시키는 O X 식이나, 하나만 옳고 다른 것은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하게하여 독선적이게 하는 사지선다형 등 그 풍인의 평가방법은 사고의 유연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이 있다.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입시에서의 내신성적 등급제는 같은 학교에서 다른 학우의 성적이 내려가 내가 유리해지는 반교육적 제도이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 및 어리석음이 모든 악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본다. 교육은 내용과 방법 모두 상대방에 따

라 알맞아야 한다고 한다. 이점에서 볼 때 학교제도는 일찍부터 규모와 종류에 있어 다양화하고 소질과 취향에 따라 취학과 이등이 자유롭게 해야한다. 아울러 법조인이나 의사에서 보듯이 각 분야의 학력이나 기능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취득되는 자격증제도를 개발·정착시켜야 하는 대학의 졸업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각자 어느 분야에서 최선을 이루었느냐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는 탐욕이 아니라 건전한 발원으로 몰두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처방이다.

한국의 교육은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학교까지도 이미 살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이기적 탐욕을 부추기는 문화로 가득하다.

이는 바로 자기중심적 성냄과 어리석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석존은 인간과 사물의 존재방식을 철저히 분석하여 탐욕과 성냄 및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바른 견해에 논되게 했다. 또한 정신적 집종의 명상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바른 견해가 내면화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존재론적 성찰과 명상은 불교적 도덕교육의 핵심이다. 학교교육에 있어 신교(信敎)의 차이를 떠나 이러한 방법을 도입해 볼지라도 하겠다.

박선영 (동대교수 교육학과)

현대만평



내일을 생각하며

불교 성지순례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원)과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립니다.

순례일정표

제 1일	12시 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출발
제 2일	방콕 - 카트만두(수외이 엠브넷, 라마불교 사원 참배)
제 3일	히말라야산(원숭이 사원, 쿠미르 사원 등 순례)
제 4일	카트만두 - 룸비니 순례 - 소노울리
제 5일	소노울리 - 발람푸르(기원 정사 순례)
제 6일	발람푸르 - 쿠시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설법지, 열반지, 화장터 등 순례)
제 7일	쿠시나가르 - 바이살리(아난다 탑, 부처님 사리탑 등 순례)
제 8일	파트나 - 리지르(죽림 정사 순례) - 브다가야
제 9일	브다가야(마하보디 대탑) - 사르나트(녹아원 참배) - 바라나시
제 10일	바라나시(겐지스강 유람) - 아그라
제 11일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 등 순례) - 보사힐
제 12일	보사힐 - 아진타 석굴 - 오랑가바드
제 13일	오랑가바드 - 엘로라 - 폼베이(비치 야경 관광)
제 14일	폼베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출발

권 출발안내
· 제1차 순례: 12월 4일 ~ 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제2차 순례: 1월 1일 ~ 1월 14일(신청마감일: 12월 17일)
· 제3차 순례: 2월 5일 ~ 2월 18일(신청마감일: 1월 21일)

권 동참금
₩ 2,190,000 (신청금 포함, 여권인제 별도)

권 신청금
₩ 200,000

권 수속 준비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미소지자: 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지대: ₩ 45,000
- 여권소지자: 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 참가인원이 단체여행기준에 미달시 출발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태국 5일	동참금: 655,000 출발일: 11/23, 30, 12/7, 14, 21, 28
미얀마·태국 8일	동참금: 1,400,000 출발일: 11/18, 25, 12/2, 9
스리랑카 6일	동참금: 1,070,000 출발일: 11/25, 12/2, 9, 16, 23, 30
대만 5일	동참금: 645,000 출발일: 11/24, 12/1, 8, 15, 22, 29

* 해외 여행 상담 및 여권, 비자 수속을 정성껏 대행하여 드립니다.